

싹싹하고 야무진 살림꾼 세아이의 엄마

- 미조초·미조중·남해고 졸업
- 미조초 학부모회장 (전)
- 미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
- 행복학교 남해권역 대표 (전)
- 미조면 주민자치회 (전)
- 남해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남해군협의회 간사
-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전)
-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전)
-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전)
- 남해군 독일마을 축제 기획단
- 남해시대 시민기자 (전)



1

세대와 삶을 잇는 사람

김진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남해군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김진실	여	1987.01.12. (39세)	평생교육사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경영학전공)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간사 (전)남해청년센터 팀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54,392	94,894	159,498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장남:없음 차남:없음 장녀:없음	병역의무 없음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5,275	0	0	해당없음
후보자	838	0	0	
배우자	4,437	0	0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어려 보여도, 삶의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
청년활동가로,
마을과 공동체를
함께 살아온 사람

1

김진실



세 아이를 키우며 생활의 무게를 아는 사람

김진실은 지금도 남해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활의 불편, 돌봄의 부담, 교육과 보육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김진실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무거운지,

또 생활 가까운 문제가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과 변화를 가까이에서 고민해온 활동가

남해군 청년센터 팀장과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김진실은 청년 당사자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고민해왔습니다.

지역 안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기회를 필요로 하며, 왜 좋은 경험이 지역 안에 남지 못하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진실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남해의 다음을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마을과 공동체의 필요를 몸으로 경험해온 사람

김진실은 학부모회, 주민자치회, 민주평통,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여러 자리에서 활동하며 마을과 공동체의 현실을 함께 경험해왔습니다.

청년의 공동체, 부모의 공동체, 기성세대의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필요합니다.

김진실은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삶이 성장하고 변할 때마다

그에 맞는 공동체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말을 정책의 언어로 특산

삶 가까이서 듣고,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생활정치 포럼 정례화

주민의 말을
공식적으로 듣고, 기록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군민 현장전문가 반영

생활의 문제를 오래 겪어온
군민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책화 시스템 적극 활용

정책지원관·정책개발비
연구단체를 활용해
주민의 말을 제도로 연결하겠습니다.